

#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

김영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 Fathers' Involvement on Their Infant Care

Kim, Yo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father involvement during the infancy period.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characteristics, the infant's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xtual sources of stress and support on reports of father-infant interac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500 fathers are studied. Results show that fathers in this sample are not regularly involved in the caretaking and the play tasks. The caretaking tasks are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thers' emotional reaction while indirectly with the first baby, the difficult baby,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play tasks differ somewhat by their work hour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 I. 서 론

산업화, 매스컴의 발달, 그리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두 분리된 세계로의 이데올로기 출현으로 인하여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의 부부관계는 남편과 부인이 별개의 관심, 활동, 책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어머니기(motherhood)의 번성과 아버지기(fatherhood)의 축소를 가져왔다.(Filene, 1986 ; Kellog, 1988, LaRossa, et al 1991에서 재인용). 이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활동에서 점점 제외되며 주로 자녀복지에 책임지게 되고 반면에 남성들은 자녀들의 양육에서 제외되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책임지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초기시기에 남성이 가족생활에 참여하고 여성이 생산노동에 복귀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학 문헌에서 '공동의 부부역할관계(a joint conjugal role relationship)', '대칭적 관계(symmetrical relationship)' 등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성별분업에 근본

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격함이 완화되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친밀감을 주로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제 남성은 가정에서 '즐거움과 안락'을 구하고 가족생활에서 친밀한 일상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Young and Willmott, 1957 ; Zweig, 1961 ; Rosser and Harris, 1965, 안병철 1933에서 재인용).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부모행동이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Maccoby and Martin, 1983), 1970년대에 들어 자녀의 출생이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도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모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탐색에 주력하였다(Belsky, 1984 ; Simons et al., 1990). 그리하여 모-자녀의 이원적 관계에 의한 연구에서 부모자녀로의 가족체계론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참여정도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Barnett and Baruch, 1987 ; Crouter et al., 1987 ; Feldman et al., 1983 ; Volling and Belsky, 1991 ; Levy-shiff and Israelashvili, 1988).

그러나 1900년대초 이래 어머니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왕성하였으나 아버지기 축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빈약하여 아버지상은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변하지 않았는지 추측할 뿐이며, 최근에는 비로소 새로운 아버지상(new father)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져 이 사회적 실체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 출생 시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버지로의 탈바꿈을 발견하지만 아직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상당히 질적,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LaRossa,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paternal involvement)를 결정지을 때 서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아버지 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첫째, 부모기 기능에 관련되는 기존의 여러 변인들 중 아버지의 유아 양육참여와 유의하게 연관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이것들을 전체로 묶어줄 이론적 모델을 구성해보고, 둘째 이러한 관련변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되는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역할, 양육태도 등의 아버지의 특성과 기질, 출생순위 등의 유아특성 그리고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취업 등의 상황적 특성으로 나누어 고려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들이 다차원적인 참여유형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아버지의 양육참여

#### 1) 참여 실제

지난 이십년동안 매스컴과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표현적인 부모역할과 적극적인 양육태도 등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아버지들도 어머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행동이나 애정을 보이며 자녀와 친근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Gilbert, 1985; Lamb, 1977; Pleck, 1977), Pleck(1977)에 의하면 이러한 확장된

아버지 역할은 여성운동과 이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 그리고 취업모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전파되어 문화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LaRossa(1988)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기에 관한 문화는 행동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내다 보았으며, Furstenberg(1988, Marsiglio 1991에서 재인용)는 최근 아버지 역할수행 방식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그 결과로 부모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한다고 밝혔다. 단지 몇가지 연구에서만 미국에서 최근 십년간 아버지 역할 수행이 의미있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Pleck, 1977; Ybarra, 1982), 그중 가장 낙관적인 결과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남편의 비율이 65년에서 81년 사이 20%에서 30%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10%의 증가는 놀랄만한 것이 못 되어서 어머니의 육아참여와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들의 절대시간은 꽤나 적은 것으로 자녀양육은 아직 어머니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아 있으며 이나마 이 변화도 요즘에는 약해져 가는 실정이다(LaRossa, 1988, 1991; Pleck, 1977)

이같은 불균형의 그림은 유아양육(infant care)에서도 그러지는데, Katsh(1981)는 3 주된 아기를 둔 아버지들은 전체 육아활동의 13%, 그리고 아기가 3개월이 되었을 때는 17%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유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달리 나타나, 남성들은 육아의 즐거운 면에 제한되어 있으며 반면에 육아의 유쾌하지 못한 측면—기저귀갈이, 목욕시키기 등의 일—은 여성의 일로 남는다. Oakley(1974, 안병철 1993에서 재인용)는 “아버지는 아이들과 놀기 위하여 그곳에 있고, 주말에 가끔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떼내가도록 기대되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도록 또 위기시에 대신 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하였으며, Parke(1981, LaRossa 1986에서 재인용)의 관찰에 의하면 어머니-자녀간 놀이 모습은 주의와 관심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패턴을 보이나, 아버지-자녀간 놀이에서는 관심의 높낮이가 급격히 변화하여 아버지-자녀간 공유시간은 더욱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을 관찰하며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그들은 혼자서 아기를 돌보지 않고 주로 어머니와 함께 돌본다는 사실과 사고를 요하는 활동—언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언제 이유식으로 바꿀지 그리고 언제 새옷을 사주어야 할지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활동은 기꺼이 어머니의 일로 위임되며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자신을 이차적 부모(surrogate parents)나 어머니의 조력자로서 인식하는 것 같다.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보는 일을 베이비시팅(baby-sitting)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아버지들이 부모기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듯이 보인다(LaRossa, 1988).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출산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이숙현, 1990; 양명숙, 1991) 이는 자녀 출산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잦은 서구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아버지는 양육 및 교육을 통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임이 증명되고 있으며(최경순, 1991; 박성수, 1992) 이에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의 적극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이후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나 교육태도를 다루었을 뿐 유아와의 양육 행동 참여의 실제와,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고찰하지 못하였다. 단지 유가호(1986)의 연구에서 유아기와 학동기 자녀들에 대하여 농촌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 온정적 보육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보육역할 수행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만을 분석했을 뿐이다.

## 2) 참여유형

가족내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참여(paternal involvement)는 일차원적 구성체가 아니어서, Lamb(1977)은 부모참여 유형을 자녀와 일 대 일 상호작용하는데 보내는 시간(interaction or engagement), 상호작용보다는 약한 강도로 자녀와 관련된 가사일이나 자녀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접근(accessibility) 그리고 일상적 육아과제 수행과 복지를 설명하는 책임(responsibility)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맞벌이 가족일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보여준 상호작용의 33%, 접근의 65% 그리고 책임에서는 단지 10%를 행하고 있었다.

상호작용 유형의 아버지-자녀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lsky(1991)와 Marsiglio(1991)등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서 아버지의 반응이나 자극, 사물을 매개체로 한 놀이, 긍정적인 애정 표현, 그리고 어린 자녀와 소리 또는 단어 따라하기 등을 관찰하였고, 반면에 책임수준을 측정키위하여 기저귀 갈기, 목욕, 급식 등의 기본 양육과제를 어머니와 얼마나 공유하는지 살펴보았다(Nugent, 1991; Belsky, 1991). 더우기 각 참여유형에 영향미치는 변인들의 상관 또한 다르다고 보고하였다(Roopenarine, 1992).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유아간 상호작용(engagement)과 책임유형(responsibility)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되어 분리시켜 두개 영역으로 측정하였으며, 접근유형(accessibility)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책임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버지들로 하여금 기본 양육과제 수행을 보고케 하였으며,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반응적이며 자극적인 유아와의 놀이형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러한 놀이형태를 자기보고식(self report type)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 2.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 미치는 요인

다양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원인규명은 가족관계의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Bronfenbrenner(1979)는 가족성원 양자간의 상호작용은 적어도 그들 관계와 외부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사회학자들(Belsky, 1984; Barnett and Baruch, 1987)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영역, 즉 대인관계 및 상황적 변인들(interpersonal and contextual variables)을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불만족(Simons et al, 1990; Volling and Belsky, 1991), 좌절감(Simons et al, 1993; Grossman, 1980; Radke-Yarrow, 1988), 어려운 아이라는 인식(Ventura and Stevenson, 1986; Nugent, 1991), 적은 수입이나 직업불안정 등의 스트레스(Simons et al, 1990; Volling and Belsky, 1991; Barnett and Baruch, 1987)등

은 비효과적인 아버지역할과 관련됨을 찾아 내었다.

먼저 Belsky는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고찰을 통한 일련의 연구에서(1984, 1991) 아버지 참여를 결정짓는 모델을 설정하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열거하였는데 첫째 인성, 자녀양육태도, 성역할 경향성 등의 부모의 특성, 둘째 성, 수, 기질 등의 자녀의 특성, 셋째 부부관계, 직업경험, 사회적 지원 등의 상황적 특성을 열거하였다. 그의 과정적 모델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차원적으로 결정되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한 다른 정도에서, 그리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저하시켰다.

또한 Lamb(1986)은 부모의 양육참여 총량에 영향주는 변인들을 넓게 정의하며 개인적 동기, 자아존중감, 친구나 부모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제도적 정책등을 들었고 Marsiglio(1991)는 이를 보충하여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 교육적 배경, 직업환경 어머니의 취업 자녀의 성, 수, 나이 그리고 가족구조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에서는 부모참여의 유형을 책임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구분짓지 못하고,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개념적 모델 부재로 통합 활용되지 못하였으며(Belsky, 1984), 타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이미 발견된 변인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관련변수를 설정하였다고는 박되고 있다(Simons et al., 1990).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연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 Belsky 모델에서 규명한 관련변인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다소 변형하여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1) 아버지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수입 :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최경순(1991)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에 따라 그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농촌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유가호(198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는 연령이 온정적 양육역할 수행에 보다 영향력 있는 변수임이 드러났다. 경제적 긴장은 여러 태도 변수를 통하여 실제 아버지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쳐, Simons 등(1990)에 의하면 아동기 가족의 경제적 압박 변수는 결혼만족도, 어려운 아이라는 인식, 좌절감 등의 매개경로를 거쳐 파괴적인 부모 역할에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직업역할 : 직업역할은 남성의 일차적인 역할로 규정되므로, 남성의 직업역할은 자주 가족참여를 제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안병철, 1993 ; Hunt, 1987). 그러나 직업의 종류, 근무시간, 직업의 따른 만족도 등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져, 대체적으로 육체노동과 사무직 종사의 아버지들은 가족생활에 보다 많이 참여하지만, 오래된 전문직과 상급 관리직에서는 일이 인생의 중심관심사로 보여져 가족에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 아버지 참여와 연관되는 직업역할 변수로서, 여러 연구들은 근무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근무시간이 아버지의 가사일을 비롯한 양육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Feldman et al., 1983 ; Belsky and Volling, 1991). Nock, Kingston(1988)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길고 자녀의 활동시간과 양립하기 어려운 스케줄일때 육아참여시간이 적었으며, 특히 저녁근무일 경우 담화, 방문, 오락 등 재미있는 활동(fun activity)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육태도 : Barnett, Baruch(1987), Marsiglio(1991), Belsky(1984, 1991)등은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변인으로 교육에 의한 사회화, 성역할태도, 인성등을 생각하였으며 특히 아동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활동에서는 이러한 양육태도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lsky(1984)는 아버지의 심리적 자원이 아동의 특성이나 상황적 특성보다 부모자녀관계를 완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나아가서 Wilkie, Ames(1986)는 부모기로의 전이시 어려운 아이로 인식하는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은 부모역할의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하여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 유아특성

기질 : 유아특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기질의 유아들 보다는 어려운 기질의 유아와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통제력이 약함을 보여 주었으며, 부모기로의 전이시 지

각된 유아기질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인성변화에 더욱 관계가 있었다(Sirignano and Lachman, 1985).

이에 Wilkie 등(1986)은 키우기 어려운 아이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의 우는 양을 측정하였는데, 울음효과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아버지에게서 더욱 커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표현되며 그 아이와의 관계에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부모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출생순위 : 유아의 성, 수(Barnett and Baruch, 1987; Marsiglio, 1991)뿐 아니라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차이를 보여, 자녀의 출생순위는 다른 매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장미나, 1994) 더우기 첫 자녀 출생으로 인한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이숙현, 1990; 양명숙, 1991)에 의하면 자녀의 출산은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족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둘째나 이상보다 첫째아와의 양육행동에서 더욱 활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상황적 특성(Contextual Sources)

부부관계 :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결혼과정의 쌍방관계에서 삼자관계로 변화하는 가족체계 형성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며 배우자의 감정적, 도구적 지지 정도가 부모-자녀 상호관계 패턴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에 원만한 부부관계는 높은 놀이참여를 보여 자녀와 긴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보였으며(Feldman et al., 1982; Levy-Schiff and Israelashvili, 1988) 어려운 기질의 유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느낀 아버지들은 높은 양육참여를 보였다(Simons et al., 1991). 또한 한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부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서 자녀에 대한 모델링으로서의 아버지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숙현, 1990).

어머니의 취업 :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내다보아 그들의 참여정도는 아내의 명백하면서도 무언의 협상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Barnett, Baruch(1987)등은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실 아버지 특성보다는 어머니 특성이 아버지 참여에

더욱 관련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아버지 육아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Volling, Belsky(1991)등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장을 가졌을 때 아버지 육아참여 정도는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Gilbert, 1982).

특히 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하여 가계소득에 기여할 때 이러한 임금은 육아관련 서비스 구입(아기 돌보는 사람, 탁아소, 장난감 등)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 아버지 참여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Ventura(1987)는 어머니가 부분취업일 때나 밤에 또는 주말에 일을 할 때, 아버지가 가장 활동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원 : 사회적 고립현상은 부모역할 수행의 역기능에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사회적 지원망이 항상 이로울 것은 아니어서, 지원상황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Belsky and Rovine, 1984). 그러나 유의미한 타인에게서 받은 지원정도는 부모자녀관계에 호혜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부모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인내심, 민감성을 증가시켰다(Belsky et al., 1981).

Crnic, Booth(1991)는 배우자, 확대가족, 친구,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였는데(QSS(Questionnaire on Social Support)사용), 이중 친구지원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sky, Rovine(1984)은 부모및 친척의 지원을 평가함에 있어 가사일과 금전문제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원, 감정적 지원, 그리고 아기돌보기로 나누워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숙현(1990)의 연구에 의하면,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취업모들의 경우는 실제로 비취업모의 경우보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아기 돌보기 등에 도움을 많이 받고 이것은 긍정적인 지원의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지원 정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 III. 연구가설과 방법

#### 1. 연구가설

이상의 문헌들을 고찰해 볼 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유아기 자녀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참여를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요인들로 구성하여 결정짓는 일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육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 논의된 세가지 영역의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들 요인들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양육참여 유형중에서 책임을 나타내는 양육과제(caretaking tasks)와 상호작용으로 보여지는 놀이과제(play tasks)에 대하여 :

- 1) 아버지의 특성변수들은 양육과제와 놀이과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유아기 울때 짜증이나 불안(정서적 반응)을 덜 느낄수록 양육과제와 놀이과제 참여는 높을 것이다.
- 2) 유아의 특성변수 즉 첫째아인 경우는 둘째아 이상보다 그리고 어려운 아기가 아니어서 우는 양이 적을수록 양육과제와 놀이과제 참여는 높을 것이다.
- 3) 상황특성변수 즉, 가족의 지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일 경우에 양육과제와 놀이과제 참여는 높을 것이다.
- 4) 앞의 세가지 특성변수들-아버지의 특성, 유아특성, 상황특성-은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 2. 측정도구

양육참여 : 종속변수인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는 책임을 제기위하여 기본 양육과제를 사용하였고 반면에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아버지-유아간 상호작용을 요하는 놀이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두개의 참여변수는 상호상관이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 $r=0.22^{**}$ )을 보여 아버지가 참여하는 육아 일중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면을 반영한다고 판단되어 따로

분리시켜 측정하였다.

양육과제는 Nugent(1991)의 Father Caretaking Inventory를 약간 수정하여 기저귀 갈기, 우유먹이기, 목욕시키기 등의 일곱 문항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과제를 일 주일에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 1-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양육과제 점수는 일곱 문항을 합한뒤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참여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0.86이었다.

놀이과제는 Belsky등(1991)이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 아기와 놀아주기 여섯개 유형을 실제로 얼마만큼 여러 종류를 실시하는지 물어보았다. 놀이 유형에 복수로 응답하게 해 응답항목을 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양육과제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로 살펴본 신뢰도는 그 계수가 0.83이었다.

어려운 유아 : 키우기 어려운 유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Wikie, Ames(1986)의 Infant Cry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아기의 우는 양을 측정하였다. 평균 하루에 우는 양과 길게 우는 정도의 두문항의 평균이 우는 점수로 사용되었다. 하루 평균 우는 양의 측정기준은 '거의 울지 않는다'(1점)에서 '꽤 자주 운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길게 우는 정도에서는 '금방 그친다'(1점)에서 '유난히 길게 운다'(4점)의 4개의 범주를 두었다. 두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우는 정도가 높으며 어려운 아기로 간주되었다.

정서적 반응 : 부모기로의 전이시 어려운 아기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ilkie, Ames(1986)가 사용한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 문항을 참조하여, 아기가 울 때 아버지의 무능력감, 짜증이나 화가남, 또는 들뜬 마음이 없어지는지의 세 문항을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세 문항을 합하여 평균한 다음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정도를 밝혔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들은 유아가 울때 더욱 화를내고 불안해 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값은 0.72였다.

가족의 지원 : 가족의 지원척도는 유아를 양육하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

는 아버지가 사회적 지원망중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Belsky, Rovine(1984) 과 Crnic, Booth(1991) 연구를 참고로하여 내용을 선정한 바, 아기 돌보기, 금전적 지원, 아기용품등의 물품의 지원, 감정적 지원의 네 영역에서의 도움이 포함되었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1-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결혼만족도 : 결혼 만족도 척도는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때 자신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느끼는가'의 두 문항을 택하였다. 두 문항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이 두 문항의 평균이 결혼 만족도 점수로 사용되었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역할(fathering) 연구를 위하여 1992년 12월부터 1993년 8월에 걸쳐 수집한 것이다. 가정방문,

각 직장 그리고 산부인과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와 개별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추후 방문이나 우편회수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포된 질문지 700부중에서 559가 회수되었고(회수율 79.9%)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후 총 50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 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후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500명의 아버지들로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1세부터 4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31.9세로 젊은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집대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 샘플을 이용한 바,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이된 아버지들은 72.8%가 대학이상(전문대 포함)의 교육을 받았으며 직업분포에서는 사무직 55%, 전문직 18.4%, 생산직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이며 시간 분포는 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매우 다양했다. 한편 아버지의 월 수입은 60~90만원이 3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0~120만원에는 30.8%를 보였으며 평균수입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내 용        | 빈도(%)     | 변수         | 내 용        | 빈도(%)     |
|----------|------------|-----------|------------|------------|-----------|
| 연령       | 30세 미만     | 112(22.4) | 부인의 취업     | 취업         | 117(23.4) |
|          | 30세-34세    | 304(60.8) |            | 비취업        | 383(76.6) |
|          | 35세-39세    | 80(16.0)  | 아기성별       | 여자         | 236(48.8) |
|          | 40세 이상     | 4( 0.8)   |            | 남자         | 256(51.2)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133(27.1) | 출생순위       | 첫째아        | 309(62.2) |
|          | 대졸(전문대포함)  | 298(60.8) |            | 둘째아 이상     | 188(37.8) |
|          | 대학원졸 이상    | 59(12.0)  | 결혼만족도      | 2점 이상-3점미만 | 8( 1.6)   |
| 직업       | 전문직        | 97(18.4)  |            | 3점 이상-4점미만 | 120(24.0) |
|          | 관리직        | 15( 3.0)  |            | 4점 이상      | 369(74.3) |
|          | 사무직        | 277(55.0) |            | 가족지원       | 1점-2점미만   |
|          | 판매·서비스직    | 44( 9.0)  | 2점 이상-3점미만 |            | 125(25.0) |
|          | 생산직        | 58(11.0)  | 3점 이상-4점미만 |            | 205(41.0) |
|          | 학생         | 8( 1.6)   | 4점 이상      |            | 95(19.4)  |
|          | 무직         | 1( 0.2)   | 어려운유아      | 1점 이상-2점미만 | 324(64.8) |
| 근무시간     | 8시간 이하     | 199(39.8) |            | 2점 이상-3점미만 | 156(31.2) |
|          | 9-10시간     | 203(40.6) |            | 3점 이상      | 19( 4.0)  |
|          | 11시간 이상    | 98(19.6)  | 정서적반응      | 1점-2점미만    | 184(36.8) |
| 월수입      | 60만원 미만    | 38( 7.7)  |            | 2점 이상-3점미만 | 200(40.0) |
|          | 60-90 만원   | 167(34.0) |            | 3점 이상-4점미만 | 95(19.0)  |
|          | 90-120 만원  | 151(30.8) |            | 4점 이상      | 16( 4.2)  |
|          | 120-150 만원 | 65(13.2)  |            |            |           |
|          | 150-180 만원 | 39( 7.9)  |            |            |           |
| 180만원 이상 | 31( 6.3)   |           |            |            |           |

103.2 만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비교적 사무직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라고 보여진다.

자녀의 성별분포는 딸 48.8%, 아들 51.2%를 보였고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아가 309명으로 62.2%를 나타내었다.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117명(23.4%)으로 나머지 383명(76.6%) 즉 2/3 정도는 전업주부이었다. 그러나 몇몇 비취업모들의 개별 면접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도 있었고,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직업 갖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부인의 취업분포 상황은 앞으로 유동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만족도는 '매우-대체로 만족한다'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가 74.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편포되어 있었다.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4.03(표준편차 0.75)이다.

가족의 지원 측정에서는 '조금 지원한다' 수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41.0%) 평균지원 점수는 3.05점(표준편차 1.05)을 보였다. 그러나 네 항목의 평균을 낸 지원점수는 1점부터 8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네 가지 영역중에서 아기용품등의 물품지원(3.67)과 아기를 돌보기의 지원(3.66)이 비슷한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어려운 유아의 측정은 하루에 평균 우는 양에서

'거의 울지 않는다'와 길게 우는 양에서 '금방 그친다'의 수준에서 64.8%로 절반을 넘고 있었다. '징징대며 길게 우는 편'의 아이들은 4%정도로 극소수이었으며 평균점수는 1.07점(표준편차 0.67)이었다.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 측정에서는 아기가 울 때 짜증이 나고 불안해 하며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지않는 정도'에서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36.8%를 보여 본 조사의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아기가 울 때 짜증을 내거나 아기를 돌보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으로 아기를 돌볼 마음이 없어지는 비율도 4.2%이었으며 꽤나 짜증난다는 사례도 몇몇 볼 수 있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아버지의 전체적 유아양육 참여경향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양육과제와 놀이과제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표 2. 양육과제에 참여한 아버지의 비율

|                         | 거의하지<br>않는다<br>(%) | 일주일<br>1-2번<br>(%) | 일주일<br>3-4번<br>(%) | 거의<br>매일<br>(%) | 하루에도<br>종종<br>몇번이나<br>(%) | 평균<br>(1-5점) | 표준편차 |
|-------------------------|--------------------|--------------------|--------------------|-----------------|---------------------------|--------------|------|
| ○ 아침에 아기를 깨워<br>옷을 입힘   | 58                 | 28                 | 8                  | 3               | 1                         | 1.69         | 1.22 |
| ○ 기저귀 갈기                | 20                 | 29                 | 28                 | 13              | 9                         | 2.66         | 1.33 |
| ○ 아기에게 우유 또는<br>간식 먹이기  | 17                 | 28                 | 29                 | 17              | 8                         | 2.81         | 1.43 |
| ○ 아기를 재우는 일             | 28                 | 36                 | 20                 | 10              | 5                         | 2.33         | 1.33 |
| ○ 목욕시키기                 | 46                 | 29                 | 13                 | 10              | 1                         | 1.96         | 1.24 |
| ○ 아기가 울 때 안고<br>달래주기    | 10                 | 27                 | 32                 | 23              | 8                         | 3.00         | 1.27 |
| ○ 밤에 자다가 아기가<br>울때 달래주기 | 44                 | 34                 | 12                 | 7               | 2                         | 1.95         | 1.23 |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

먼저 <표 2>는 아버지의 양육과제에 참여한 실태를 보여주는데, 일곱 개 양육과제에 대한 아버지 참여율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번을 조금 넘어서고 있었다(Mean=15.76, S.D.=5.31). 일주일에 3~4번이상의 참여를 보일때 이를 규칙적인 활동(regularly activities)이라 간주한다면(Nugent, 1991) 이같은 참여율은 규칙적인 양상으로는 볼 수 없으며, 아버지들의 개인차도 심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중 가장 많은 비율의 아버지들이 규칙적으로 낮이나 저녁시간에 아기가 올 때 달래주는 일(63%)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양육과제는 아이에게 우유먹이는 일(54%)이었다. 기저귀 가는 일(50%), 아기재우는 일(35%), 그리고 목욕시키기(2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단지 12%의 아버지들만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아기를 깨워 옷을 입히고' 있었으며, 58%는 이 일에 참여치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밤에 자다가 아기가 올 때 달래주기' 항목에서도 낮은 참여율을 보여 이같은 양육과제는 아직 어머니의 할 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일랜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의 양육과제 척도를 적용해 본 Nugent(1991)의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두 가지 과제에서 절반 이상의 아버지들이 규칙적인 활동을 보였다. 즉, '아침에 아기를 깨워 옷을 입힘'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밤에 자다가 아기가 올때 달래주기'에서는 61%의 아버지들이 규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장미나, 1994).

본 연구의 어떤 면접 대상자(회사원 37세)는 "밤에 깨어나서 아이 돌보는 일은 깨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직장생활로 인해 지장을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많은 부담과 긴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놀이과제 갯수에 따른 아버지의 비율

| 놀이과제 갯수 | 빈도  | 퍼센트  |
|---------|-----|------|
| 0       | 7   | 1.4  |
| 1       | 131 | 26.2 |
| 2       | 109 | 21.8 |
| 3       | 134 | 26.8 |
| 4       | 64  | 12.8 |
| 5       | 54  | 10.8 |
| 전체      | 499 |      |

표 4. 놀이과제 항목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비율

| 놀이과제                                | 자주하는 편임 (%) | 그렇지 않음 (%) |
|-------------------------------------|-------------|------------|
| ○ 아기와 함께 소리흥내<br>얼굴표정 또는 단어<br>따라하기 | 60          | 40         |
| ○ 노래해주기                             | 34          | 66         |
| ○ 책 읽어주기                            | 27          | 73         |
| ○ 들어 올려주기나<br>무동태워주기 등<br>신체적 놀이    | 75          | 25         |
| ○ 장난감을 사용한<br>놀이하기                  | 60          | 40         |

다음으로 <표 3>와 <표 4>에 의해 아버지들이 놀이과제에 어느정도 참여하였는지 알아보았는데, 한 가지 과제에도 자주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다섯개 모두 자주 놀아주는 아버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일상생활에서 평균 2개에서 3개정도의 놀이과제에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an=2.56, S.D=1.33). 서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Lamb, 1977) 유아를 안아주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양육적 기능인 반면에, 아버지들은 놀기 위하여 자주 안아준다고 하였으며, Volling, Belsky(1991)의 관찰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버지의 경우는 더욱더 반응적이며 자극적이고 애정적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의 대상자들(75%)은 무동태워주기 등 신체적 놀이에 자주 참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장난감을 이용하는 놀이(60%)나 언어습득을 위하여 동물울음 흉내내개, 단어 따라하기(60%)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아직 2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한 놀이이어서 책 읽어주기의 비율(27%)이 가장 낮았다.

2. 관련변수에 따른 아버지의 유아양육참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변수들간 상관관계

| 변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양육과제   | 1.00   |        |        |        |      |       |        |       |      |      |
| 수 입    | -.12** | 1.00   |        |        |      |       |        |       |      |      |
| 어려운 유아 | -.07*  | -.05   | 1.00   |        |      |       |        |       |      |      |
| 결혼만족도  | .13**  | .11*   | -.10*  | 1.00   |      |       |        |       |      |      |
| 어머니취업  | .08*   | -.00   | -.10*  | .04    | 1.00 |       |        |       |      |      |
| 가족지원   | .09*   | -.11** | .08    | .09*   | .08  | 1.00  |        |       |      |      |
| 정서적반응  | -.28** | -.05** | .25**  | -.30** | -.05 | -.05  | 1.00   |       |      |      |
| 근무시간   | -.13** | .05    | -.08** | -.06   | -.01 | -.09* | .05    | 1.00  |      |      |
| 첫째아    | .16**  | -.24** | -.06   | .10*   | .03  | .14** | -.15** | .01   | 1.00 |      |
| 놀이과제   | .22**  | -.08*  | -.16** | .12**  | .00  | .04   | -.12** | -.08* | .08* | 1.00 |

\*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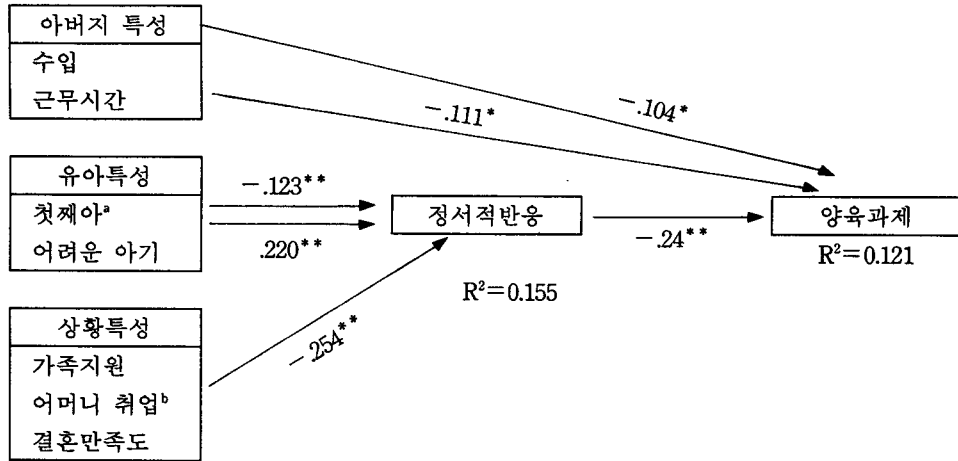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아 연구모델로 선정한 설명변수들과 두가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과 일치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입, 근무시간, 정서적반응 등의 아버지 특성변수와 어려운 아기의 유아특성변수는 부정적으로 양육과제와 관련하고 있었으며, 결혼만족도, 어머니취업, 가족지원 등의 상황특성변수와 유아특성의 첫째아 변수는 양육과제와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놀이과제에서는 아버지의 수입, 근무시간, 정서적 반응, 어려운 유아특성이 부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유아가 첫째아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놀이과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못한 점은 아버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유아참여가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자료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수입이 경제적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서구의 연구결과(Simons et al., 1990)에서 보여준 경제적 긴장의 영향력과 차이가 있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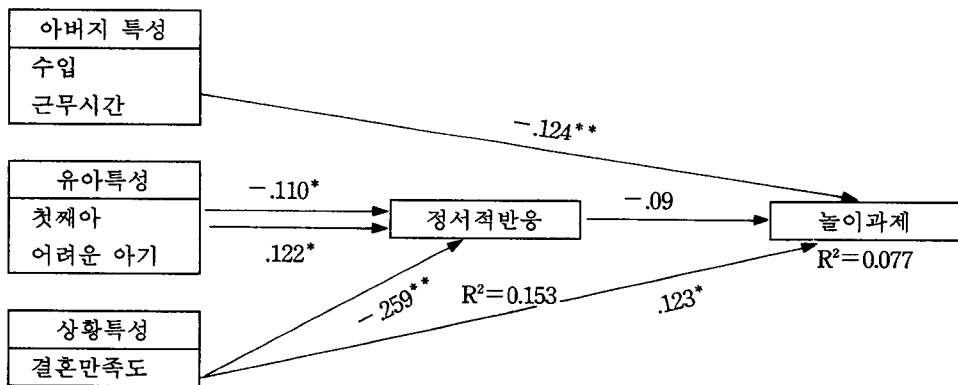
자원소유 여부에 따라 가족역할 수행정도를 사용한 ‘자원이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즉, 아버지의 수입이 본인에게 있어서 보다 큰 자원이 되므로 부부역할, 가족역할의 몫을 감소시킨다는 연구(Clark and Nye, 1978)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단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정인자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명변수의 상관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생각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과제와 놀이과제의 두가지 종속변수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각 종속변수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즉 순차모델(recursive model)로 시작하여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시키며 줄여나갔는데, 경로모형의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



〈그림 1〉 양육과제 모델



〈그림 2〉 놀이과제 모델

\* P ≤ .05      \*\* P ≤ .01

더미변수 (dummy variables)의 처리

a : 1=첫째아 / 0=둘째아이상

b : 1=취업주부 / 0=비취업주부

〈그림 1〉은 아버지의 양육과제에 대하여 경로분석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표준화된 경로계수만을 제시하였다. 양육과제와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들로는 아버지의 수업, 근무시간과 정서적 반응이었다. 예상한대로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 $\beta = -0.24$ )과 근무시간( $\beta = -0.11$ )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유아를 돌보며 아버지가 짜증이나 불안을 느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양육과제 참여는

높았다. 그러나 연구과설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특성 중 수업 ( $\beta = -0.10$ )은 부정적인 상관을 보여 수업이 적을수록 양육과제참여가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유아특성인 첫째아와 어려운 아기 그리고 상황특성 중에서 결혼만족도의 효과는 정서적 반응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이는 경제적 압박이 여러 태도 변인과 정서적 변인에 의해 매개되어 아버지의 파괴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준 Simons, Whitbeck(199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특성변수와 상황특성변수들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양육과제와 관련되지 않았으나 아기가 울때 나타나는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을 통하여 들

째아 이상보다는 첫째아들이. 어려운 유아가 아닌 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과제에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덟개의 설명변수들은 양육과제변량의 12%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림 2〉는 아버지의 놀이과제에 대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로서, 5% 수준에서 유의한(표준화된 경로계수 제시) 6개의 독립변수들은 양육과제보다 낮은 7.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아버지의 근무시간( $\beta = -0.12$ ), 결혼만족도( $\beta = -0.12$ ), 그리고 정서적 반응( $\beta = -0.09$ )는 놀이과제에 직접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유아특성인 첫째아, 어려운 아기 그리고 상황특성의 결혼만족도는 정서적 반응에 매개되어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양육과제와는 달리 놀이과제 참여에는 결혼만족도가 직접효과를 나타내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상자와의 면접시 좋은 아버지상을 물어보는 질문에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내와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느는 것 같습니다.”라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대상자(32세)의 답변이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 양육행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가족성원 양자간의 상호작용은 그들 관계와 외부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관점하에 아버지, 자녀 양측의 특성과 이들이 놓인 상황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지역에 질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500부의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산술평균,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유아에 대한 양육참여는 책임을 나타내는 양육과제와 상호작용을 요하는 놀이과제로 분류하여 보았는데, 양육과제 7개 항목에 대하여는 일주일에 1~2번을 조금 넘는 불규칙적(not regular base)인 참여형태를 보였으며, 놀이과제 5개

항목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2~3개 정도에 자주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의 놀이형태로 관찰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사용 유무를 파악하였을뿐 실제로 하루에 몇가지 놀이과제를 얼마만큼이나 수행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 가정방문을 통한 유아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과제와 놀이과제참여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양육과제에는 아버지특성변수 수입과 근무시간, 정서적 반응이, 유아특성변수 첫째아와 어려운 유아가, 상황특성변수로 가족지원, 어머니 취업,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한편, 놀이과제에는 상황특성변수중 가족지원과 어머니 취업을 제외하고 양육과제와 동일한 변수들과 관련되었다.

셋째, 아버지의 육아과제 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경로분석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으로 밝혀졌으며, 유아특성의 두가지 변수와 결혼만족도는 정서적 반응에 매개되어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서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고양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연구가설과는 달리 상황특성중 어머니 취업, 가족지원 변수는 아버지 양육과제 참여에 유의한 예측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취업여부를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탓으로 해석되며 또한 취업모의 사례수가 적어 (전체의 1/3) 비교가 어려운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가족지원 정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지원에 따른 아버지-유아간 관계를 분석해 봄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넷째, 아버지의 놀이과제 참여를 예측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은 아버지의 근무시간과 결혼만족도로 나타나, 아버지의 직업역할중 근무시간에 따라 가족참여가 제한된다는 Nock, Kingston(1988)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었다. 한편, 놀이과제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은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부

부관계가 원만해지는 한국적 특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편의샘플을 이용한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측정도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과제 참여를 자연상황에서 관찰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아버지들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하여 아버지 개인의 특성, 유아의 특성, 그리고 상황적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되는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을 더욱 깊이 고찰함과 아울러 발달적 차원으로 가족의 역사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성수(1992), 새로운 아버지 상과 아버지됨. 또한 나의 문화 제1호, 60-67.
- 안병철, 서동인, 옴김(1993),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106-157.
-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 제3호, 31-54.
- 유가효(1986), 학동기이전 자녀에 대한 농촌 아버지의 역할, 계명대 과학논집, 12, 77-86.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제2호, 1-27.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223-239.
- Barnett, R. and G. Baruch (195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MF, 49, 29-40.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and M. Rovine(1984h), Social 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MF, 46, 455-462.
- Belsky, J., L. Youngblade, M. Rovine and B. Volling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MF, 53, 487-49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 Clark, R.A. and F.I. Nye(1978), Husbands work involvement and marital role performance, JMF, 38, 9-21.
- Crníc, K.A. and C. Booth(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MF, 53, 1042-1050.
- Crouter, A.C., Huston, T.L., McHale, S.M. and Perry-Jenkins(1987), Processe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1-440.
- Fein, R.A.(1978), Research on fathering, Journal of Social Issues, 34, 122-135.
- Feldman, S.S., Nash S.C. and B.G. Aschenbrenner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 Gilbert, L.A.(1985), Men in dual-career families :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rospects, Hillsdale, New Jersey.
- Glass, J and V. Camarigg(1992), Gender, parenthood and job-family compatibility, AJS, 98, 131-151.
- Hunt, J.(1987), Male resistance to role symmetry in dual-earner households.
- Lamb, M.E.(1977), Father-infant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Katsh, B.S.(1981), Fathers and infants : reported caregiving and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 275-296.
- LaRossa, R. Gordon B.A, Wilson R.J and A.Bairan (1991), The fluctuating images of the 20th century American father, JMF, 53, 987-997.
- LaRossa (1986), Becoming a Par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3. Sage Publication :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Levy-Shiff, R. and R. Israelashvile.(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a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34-440.
- Maccoby, E. and A.Martin(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n P.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1-101.
- Marsiglio, W.(1991), Patern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MF*, 53, 973-986.
- McGovern, M.A.(1990), Sensitivity and reciprocity in the play of adolescent mothers and young fathers with their infants, *Family Relations*, 39, 427-431.
- Nock, S. and P. Kingston(1988), Time with children : The impact of couples' work 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 Nugent, J.K.(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JMF*, 53, 475-485.
- Pleck, J.H.(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7-427.
- Roopnarine, J.L. and E.Talukoler(1992), Personal well-being, kinship tie, and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s in New Delhi, India, *JMF*, 54, 293-301.
- Simons, R.L., Whitbeck Les B, Conger D, and J.N. Melby(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JMF*, 52, 375-392.
- Simons, R.L., Beaman J. Conger R.D. and Wei Chao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MF*, 55, 91-106.
- Sirignano, S.W., and M.Lachman(1985), Personality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58-567.
- Ventura, J. and M.Stevenson(1986), Relations of mother's and father's report of infant temperament, psychological responses and family characteristics, *Merill-Palmer Quarterly*, 32.
- Ventura, J.(1987), The stresses of 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 26-29.
- Volling, B.L. and J. Belsky(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MF*, 53, 461-474.
- Wilkie, C.F. and E. Ames(1986), The relationship of infant crying to parental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MF*, 48, 545-550.
- Worthington, E.L. and B.G.Buston(1986), The marriage relationship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7-4, 443-473.
- Ybarro, L.(1982), When wives work, *JMF*, 44, 169-178.